

◆ Acquisition, Preservation and Administration of Provincial Materials.

郷土資料의 蒐集, 保存, 管理와 그 問題點

朴 致 旭
(慶北學生圖書館長)

①

우리는 「郷土資料」란 말을 찍으나 쉽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 郷土資料란 무엇을 말하느냐고 자問해보면 얼른 要領있는 解答이 나오지 않아 머뭇거리게 된다. 사실 郷土資料의 範疇는 넓고 그 하나 하나를 細分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가 살고 있는 單位 高장이라 해서도 郷土의 歷史性 즉 過去와 現在를 말할 수 있는 資料는 有形無形이건 간에 참으로 많다. 이 資料들이 郷土史를 證明하고 補充하는 한편 郷土의 現實을 啓開發하는 밑바닥이 되고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歷史가 되고 國力培養의 귀중한 밑천이 되는 것이다.

郷土資料란 그 郷土를 밝힐 수 있는 모든 資料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近者, 우리 나라의 各級學校(本稿에서는 大學除外)의 獎學指針에 郷土館 設置 및 그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一線敎師들의 郷土資料에 대한 關心과 그 蒐集熱이 높아져 많은 成果를 올리고 있음은 실로 반가운 일이다.

郷土資料는 現代의 것에서 허물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先人의 文化遺産에 이른다. 이 文化遺産은 비단 시골, 또는 古蹟地帶에만 있는게 아니고 都市는 물론 그 나라의 版圖 안이면 어디에든 散在해 있는 것이다. 筆者는 주어진 題目에 따라 前者보다 後者의 文化遺産, 祖上의 빛나는 業績의 蒐集, 保存, 管理에 대해서 平素에 느낀 點을 적어보려 한다.

②

先進外國에서는 人口 2, 3萬이 넘는 都市의 경우 여러 개의 圖書館은 물론 博物館(美術館포함) 또는 郷土歷史館(陳列館등)이 있다. 특히 프랑스, 伊太利, 英國 같은 나라에서는 10餘年來, 古蹟地 保存과 自然環境의 保存, 美化運動이 汎國民運動으로 展開 되고, 現代化와 公害로 골치를 앓고 있는 日本은 公害를 앞장 세워 古蹟自然保護의 「캠페인」은 물론 그 나라의 重要한 政策의 하나로 삼을 정도이다. 「홀랜드」의 境遇, 第2次

大戰에서 祖上의 文化財를 「나치」獨逸에게 팔아 넘긴 畫家를 民族返逆罪로 處斷했고, 프랑스에서는 個人所有의 文化財登錄을 1945年 終戰直後에서 20餘年間을 걸쳐 實施한 바도 있다.

우리 나라는 오랜 歷史와 傳統 아래 世界的인 文化遺産이 많았으나 高麗以來의 거침한 外侵과 日帝에의 併呑등을 거쳐 燒却, 強奪을 당하고 또한 湮滅되고 8·15光復以後에도 6·25와 같은 大戰禍를 입었을 뿐 아니라 保護政策의 貧困과 일반 國民의 無關心이 겹쳐서 流出, 亡失, 消滅이 되풀이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5·16을 맞이했고, 10餘年 이 系統에 대한 蒐集, 保存策이 講究되고 本格的인 調查研究가 實施 되어 4.5年來 復元, 補修가 활발히 進行 되고 私有 動產文化財의 登錄도 實施되고 強力한 文化財保存法도 制定되고 따라서 國民들의 認識도 向上된 것이다. 無數한 우리의 貴重文化財가 없어졌다해도 아직은 어느 民族, 어느 나라 못지않은 많은 文化遺産이 있어 우리들의 誠意, 關心, 努力 여하로 民族의 優秀性을 誇示할 수 있고 우리들이 創造한 文化를 後世에 遺産으로 남길 수도 있는 것이다.

現實의인 與件 아래서 最善의 可能과 能力으로 調查研究하여 保存策이 講究되고 管理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時點에서 各級學校의 郷土教育은 重要하고 郷土館 또는 郷土資料室은 蒐集, 保存, 管理에 學生, 나아가서는 地域社會人의 參與로 보다 効率的인 成果를 거두게 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그러나 이 郷土資料室의 運營은 물론이거니와 蒐集管理에 가로 놓인 問題가 너무나 많다. 여기에 대해선 後述하겠거니와 오늘 날 우리들의 教育에 地域社會의 郷土學校가 얼마나 健全하고 誠實하게 다뤄져 얼마나 成果를 올리느냐가 곧 結果論의으로 그 教育의 成敗를 가름한다고 해서 지나친 말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처럼 自主, 自立性과 矜持를 통한 愛國心의 發揮가 要請된 時期가 일찍 없었다. 여기에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現實에 대한 理解가 받침 되어 自然發生의이어야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自己能力에 대

한 自信의 確認이 隨伴되어야 한다. 그것은 自己民族 즉 自己鄕土의 先人들과 그분들이 남긴 힘, 力量에서 우리는 自己의 力量, 能力을 確認하고 自己自身에 대한 진실한 反省이 이뤄지는 것이다. 내 아버지가 이만한 일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라해서 못할 것이 있느냐!」

『우리의 先人이 이만한 일을 했는데 우리인들 못할 바 있으며, 우리 先祖의 그 당시, 그런 일에는 그렇게 對處했던 것 보다는 이렇게 對處했으면 좋았을 것을……』

鄕土資料를 蒐集하고 鄕土學校의 成果를 期待하는 것은 단순히 形式的인 文化財의 保護란 利己의인 目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 統計上으로 云謂할 時期는 아니겠지만 全國의 各級學校에 鄕土資料室이 어느 정도 設置되고 어떠한 規模인가는 評價以前의 상태이겠지만 그러나 大部分의 各級學校는 그 나름대로의 鄕土室이 마련되었거나 最惡의 경우라 해도 陳列箱 몇개쯤은 꼭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現實의 與件 가운데 財政的인 뒷받침 못지않게 專門知識의 不足 등 難題에다 蒐集上의 隘路가 큰 問題인 거로 알고 있다. 거기에서 運營의 不合理性까지 겹쳐 있으니 鄕土資料室의 앞날은 띄어나 어려운 諸問題를 안고 있다 해알 것이다.

③

첫째로 蒐集對象은 어떤 것이며, 어떠한 方法으로 蒐集해알 것인가? 現代의 것으로는 各種統計 즉 人口, 産業, 經濟, 敎育, 文化, 人物 등 모든 分野에 걸친다. 그 統計를 뒷받침하는 文字로서의 記錄外에도 寫眞, 錄音 등이 必要로 한다. 特히 自然環境, 人物 등에는 배서는 아니 될 일이다. 本稿의 序頭에 말했던 先人의 文化遺産을 위주로하여 言及하고 現代篇의 具體的인 이야기는 다음 機會로 미루기로 하겠다.

우리 祖上이 남긴 文化遺産은 실로 多岐多樣하게 많다. 이미 알려진 것, 개중에는 文化財로서 指定된 것과 學界에서 充分히 研究되어 保存策이 講究된 것은 물론 全然 알려 있지않은 즉 山野, 河川에 방기 되어 있는 것에 이르기 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鄕土資料의 蒐集은 늘 새로운 文化遺産의 發見에 그 값어치를 더해 간다.

그것은 有形的인 것에서 無形的인 것도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地下埋葬物 또는 特定個人의 깊숙히 감추어져 있는 文化財에 이른다. 有形的인 것으로는 史蹟, 各種 遺趾, 墳墓, 城趾, 塔婆, 建物, 鄕校, 寺院, 書院 祠堂齋堂, 金石, 其他 不動產에 속하는 것과 動產의 으론 各種 器具를 비롯하여 典籍, 書

畫, 板刻, 服飾, 瓦當, 假面, 書冊에 이르고, 傳說, 民謠, 民俗 등 無形的인 것도 있고, 天然洞窟 및 樹木, 草石, 鳥類, 動物, 魚類 등 自然에 속하는 것과 動, 魚 植物에 이룰 뿐 아니라 景勝의 山野도 鄕土資料로서 除外 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그 對象이 넓고 많아서 그 地域單位로 그 地域안의 各級學校 및 機關에서 散發的으로 調査, 蒐集한다는 것은 普遍的이고 常識的인 方法을 넘어서서 調査, 蒐集한다는 것은 極히 어려운 일이다. 이 계통은 高度의 專門知識을 必要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鄕土의 學校 내지는 其他機關의 人的資源으론 지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可能한 調査 즉 表的 調査에 머물고 蒐集된 文化財와 새로운 發見은 恒常 專門機關 내지 專門學者에게 맡겨야 할 일이다. 文化財保存法이 嚴存해 있으니 鄕土資料室을 위해 原形이 달라지게 하거나 學校로 옮기는 일등은 絶對로 말아야 하며, 補修가 時急한 거나 꼭히 옮겨야 할 것은 關係當局의 指示에 따라야 할 것이다.

蒐集의 한 方法으로 數年前까지 흔히 行해진 한 實例를 들어 各自의 反省을 促求함과 아울러 앞날의 參考로 삼고자 한다.

都市의 어느 中高等學校에서 하기 좋은 말로 여름방학 宿題로 옛날의 土器나 陶磁器를 1點以上 가져 오게 했다. 좋은 것을 갖고 오는 學生에게는 社會科의 成績을 參酌하겠다는 公約까지 하고, 李朝磁器가 傳來되어 온 집 아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운데의 한 두點을 갖고 갈터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같은 宿題를 안고 시골에 모여든 他學校學生들과 古墳을 파헤치고 그러지도 못하는 아이는 骨董商에 가서 사가지고 간다는 것이다. 筆者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비록 無名이기는 하나 鄕土史와 考古學을 研究하고 있는 K씨의 말을 더 引用해 보겠다. 高校, 中學, 國民學校에 다니는 세 子女가 공교롭게도 같은 宿題, 「옛날 물건 갖고 오기」 때문에 세 아이들은 밤낮으로 苦悶하고 끝내는 아버지의 蒐集品을 달라는 것이었다. 愛之重之 蒐集 또는 傳來되어 온 것이었으나 하는 수 없이 高校아이에게는 高坯土器를 주고 中學아이에게는 常平通寶의 葉錢을 5圓, 國民學校의 꼬마에게는 舊韓末의 1錢짜리 銅錢을 주고는 親切하게 解說를 부쳐주었다. 그랬더니 國民學校 先生은 아이의 머리를 쓰담으며 칭찬을 하고 中學校 先生은 그깟 葉錢이냐고 코웃음을 치고 高等學校는 解說文을 읽고 난뒤 이 解說은 누가 썼느냐고 묻기 아버지가 적어주었다 하니, 임마 너 아버지 제법이구나 하는 통에 長男은 울화통이 터져 先生과 言爭하고는 社會點數 曠點이라도 좋다는 식으로 되려 갖고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화가 치밀린 K씨는 自己가 關係하고 있던

博物館長의 이름으로 某郡某洞 山×番地의 古墳盜掘 告發을 해 버렸다. 結局은 數個校, 數名의 盜掘學生이 呼出되고 數個校의 擔當教師를 혼을 내었다.

또한 예를 들어 보겠다. 앞서와 같은 宿題 때문에 가족신과 비너가 없어진 것을 몇달 뒤에야 發見한 60代 할아버지 A씨의 경우이다. 그 가족신은 子子孫孫 12代나 傳해오는 判書公의 신발로 家寶中の 家寶이고 七寶비너는 그 分의 高祖母 貞敬夫人이 시집을 때 차고 온 비너란데서 問題가 생겨났던 것이다. 이 老人은 7백리가 넘는 都市의 學校로 찾아 통사정을 하고 되찾아 왔다는 것이다. 以上은 過度期의인 過去의 얘기지만 오늘 날에도 꼭히 參考가 되리라 믿기에 장황히 적어본 것이다.

아무리 學校의 鄉土資料室에 陳列할 것이라 해서도 蒐集은 合法的이어야 하고 몇몇해야 한다. 近者, 메스 톱은 조그만 것 하나만 나와도 (알고 보면 그다지 重要하고 새로운 것이 아닌데도) 國寶級이니 時價 몇百萬원이니 하는 법석통에 先人의 文化遺物을 所有하고 있는 사람의 認識이 評價以上으로 달라지고 各種商人(骨董, 價檔, 십지어 옛장수)이 시골의 구석 구석을 누비고 있기 때문에 앞서 引用한 보기와 같은 方法의 蒐集은 될 수가 없고 또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教育的인 見地에서나 道義的인 面에서나 간에 몇몇한 方法은 아닐 것이다.

특히 私有動產 文化財의 申告 登錄이 行해진 現實에서 이미 蒐集되어 있는 文化財속에 申告對象의 文化財가 없는가를 알아 볼 일이다. 蒐集은 어디까지나 合法的이어야 한다. 鄉土資料室은 그 地域에 있어 動產文化財의 蒐集保存의 示範이 되어야 하고 學校는 모든 文化財의 保護機關으로서 그 地域社會人으로부터 깊은 信賴를 얻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動產文化財의 蒐集方法은 正當한 價格으로 購入해야 할 것이나 우리의 事情이 그렇지 못한 實情에서 꼭히 必要로 하는 것이면 說得으로 寄贈을 받거나 保管形式을 取하는 수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寫眞 등으로 陳列이 可能할 수가 있다. 그러한 方法을 써서 蒐集된 文化財는 설령 그것이 값으로 쳐서 하잘 것 없는 것이라 해도 所重히 保存管理되어야지 破損되거나 紛失하는 일이 없도록 細心한 注意를 해야 할 일이다.

動產文化財의 경우는 그러하거나와 不動產文化財의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주로 寫眞과 實測圖를 마련할 것이며 알려지지 않은 支石墓, 土山城, 寺趾 佛像 등은 곧 그 所在과 規模를 當局에 알릴과 아울러 調査를 해 볼 일이다. 專門機關의 學者의 數가 僅少한 與件 아래서 鄉土資料室의 擔當教師는 鄉土史를 發掘, 調査研究하는 一翼도 맡아야 한다.

無形文化財인 民俗놀이 民謠, 傳說 등은 그 大部分에 現代의인 感覺에 加味 되었거나 漚滅直前에 놓인 것이 많다. 可能한 努力을 다해서 原形을 蒐集토록 努力해 알 일이다. 方言 地名 또한 마찬가지이다. 錄音의 境遇 技能保持者의 發掘이 중요한 거로 생각한다. 天然紀念物에 속하는 것으로는, 自然洞窟이던 寫眞, 記錄, 實測度 또는 斷面模型 등, 乳岩같은 것을 끊어내어서는 안된다. 樹木은 관목으로서 植付가 可能하고 密生되어 있는 것이면 學校林이나 花壇, 實習地에 移植栽培해 볼 일이며, 魚類의 경우는 특히 指定된 것이면 一般民의 濫獲을 막는 한편으로 그 分布, 生態 등을 綿密히 監察해서 그 寫眞, 記錄 등을 만들어 볼 일이다. 특히 鳥類의 境遇 鄉土資料의 蒐集을 理由로 捕獲한다 거나, 剝製를 만들기 위해서 捕殺하는 일이 없도록 一般分布 鳥類이던 相關 없겠으나 指定되어 保護對象의 鳥類의 경우 그러하다. 捕獲하는 경우도 禁獵期엔 삼가해야 한다. 西海岸地帶의 두루미가 滅種危機에 있고 「크낙새」 등이 全國적으로 몇마리 밖에 없다는 現時點에서 自然保護에 極力 參與해야 한다.

各級學校의 鄉土室, 내지 資料室은 本格博物館은 아니지만 그것을 도우는 小博物館인 동시에 鄉土를 알리는 展示場이다. 이는 비단 學童들만이 보는데 아니고 地域社會人에 모두 보고 參考하는 資料室이다. 우리의 經濟水準이 向上되고 文化民도가 보다 높게 되는 그 어느 날 마련 될 鄉土博物館의 基礎를 만든다 해서 過言은 아니다. 그런 點에서 比較的 蒐集이 容易한 요즘, 鄉土資料室은 擔當教師의 努力에 比例해서 充實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④

保存은 蒐集에 못지않은 중요한 課題이다. 動產文化財의 경우도 問題이러니와 古蹟, 史跡, 其他, 不動產文化財의 溫소한 保存策은 東西, 先後進을 막론하고 많은 精力과 努力이 傾注되고 있는 實情이다. 本稿에서는 蒐集된 資料에 대한 保存策만을 다루기로 한다.

지금 各級學校는 學校設立基準에 맞는 校舍를 유감 없이 갖고 있는 學校가 많지 않다. 直接 아이들이 工夫하는 教室도 不足한 形便에 附帶室의 마련은 어려운 일로 鄉土資料室을 따로이 갖기를 바라기가 어려운 實情이다.

대개의 境遇를 보면 建物の 空間 즉 廊下라든가 校長室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지금의 事情上으로 더 慾心을 부릴 수 없는 일로 이와 같은 與件 아래서도 어느 程度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陳列床이 마련되어야 한다. 博物館에서 보는 陳列床과 같은 것이 아니래도 좋을 것이다.

이 陳列床에는 郷土의 各種産物을 비롯하여 先人의 文化遺物들을 爲主로 陳列하고 陳列된 것에는 알기 쉬운 解説과 出土地, 蒐集年月日, 蒐集者를 明記하고 資料臺帳도 꼭히 마련해야 한다. 마루의 壁面을 利用해서 寫眞, 圖面, 土産物의 製造, 栽培過程등을 圖示, 解説해 볼만도 한 일이다.

郷土資料의 保存은 끊임없는 關心과 이를 觀覽利用하는 需要者의 利用度에 따라 잘 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는 법이다. 資料室은 만들어 놓아도 위로는 校長으로부터 一般教師에 까지 關心이 없고 學童들 또한 돌이켜 보지도 않는다면 必然的으로 資料室은 망가지고 애써 蒐集한 資料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고 만다.

郷土資料室의 擔當은 司書教師 또는 社會科 教師를 中心으로 하여 全校全教師가 맡아야 하고 學長의 直接管理下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最少限 年1회라도 郷土誌와 비슷한 「내고장의 자랑(假題)」과 같은 油印物도 내어 郷土學校의 成果를 地域社會人에게 認識시켜 볼만도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소품을 利用해서 土出城趾를 찾아 무너진 들속에 土器類의 破片을 採集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關心度를 높이며, 나아가서는 保存에 이바지하는 效果를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保存物에 腐敗破損의 우려가 있는 書冊類는 年 1·2 회, 乾風을 시켜야 하고 항상 鄭重하게 取扱을 해야 할 것이다.

⑤

管理는 蒐集, 保存面에서 거의 言及해 버려 郷土室의 管理面에는 따로이 말 할 것이 없다. 그러나 郷土室에 備置된 寫眞圖面과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遺趾, 古墳塔婆 등의 保存管理에 各級學校의 誠意있는 參與가 要請된다.

지금 各級學校는 해당 地域內의 文化財保護를 擔當하고 있어 文化財의 環境整理에서 監視의 任務까지 맡고 있으나 자칫 外面的인, 形式에 흐르기 쉽다. 그 對象文化財가 學校와 距離가 멀고 또한 學童들이 居住하는 村落에서 遠距離인 경우는 하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나 一般的으로 文化財의 損傷은 철 없는 어린이들의 장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學童들에게 그런 觀念에서 啓蒙한다면 그 結果는 文化財保護의 큰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郷土資料室은 蒐集, 保存, 管理등에 3位體1가 되므로해서 비로소 어려운 逆境을 뚫어 훌륭한 郷土學校의 建設에 이바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3者에 대한 問題點 또한 한 두가지가 아니다.

蒐集에 必要한 費用은 물론 陳列床을 몇 개 만든다

해서도 經濟的인 問題가 따른다. 거기 敎務의 餘暇에서 이루어지는 個人的 犧牲, 專門知識의 不足에서 오는 方法論的인 問題의 解決策등, 이 모두가 단순하고 간단하게 解決되는 게 아니다. 또한 이들 問題點을 풀어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時點에서 다만 바랄 수 있는 길은 敎育者로서의 情熱과 보람과 努力과 郷土愛에 呼訴하는 길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可能性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現實이 이런 隘路들을 克服하는데 우리의 偉大性에 發露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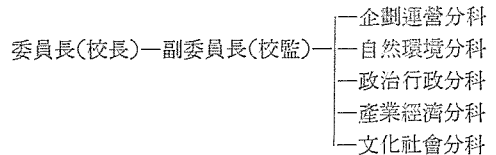
끝으로 本道敎委산하 各級學校에서 設置 運營을 추진하고 있는 郷土館의 計劃과 實際面을 소개해 보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1. 目的; 郷土學校 建設의 中核으로서 郷土內의 政治, 産業, 經濟, 敎育, 文化, 社會 等에 關한 各種 郷土資料를 調査 蒐集 및 展示 活用함으로써 郷土에 對한 理解와 關心度를 깊게 하여 愛郷心을 鼓吹시키고 郷土社會의 發展을 阻害하는 各種 問題點을 發見하여 그 解決方案을 模索함으로써 郷土의 改善 發展에 積極 參與할 수 있는 能力과 態度를 기르게 함과 同時에 나아가 郷土文化 Center로서 郷土의 文化財를 愛護 保存하고 後世에 까지 길이 繼承케 함을 目的으로 한다.

2. 努力重點;

- ① 愛郷心の 鼓吹
- ② 郷土 資料 擴充 및 活用 強化
- ③ 地區 單位 郷土館의 設置
- ④ 施設 및 施設 擴充 年次 計劃 樹立
- ⑤ 郷土 資料의 公開

3. 運營機構;



○司書教師 또는 社會科 擔當教師가 主動이 되고 全職員이 參加한다.

○學生은 郷土 開發 研究班 學生이 主動이 되고 可及의 많은 學生을 參加시킨다.

4. 設置場所;

設置 場所는 各 學校單位로는 遊休敎室 또는 複道等을 利用하며 各地域 社會 單位로는 文化館 또는 公報館 等 그 地域社會의 公共施設을 利用하되 그 種類는 다음과 같다.

- 郷土館~獨立된 建物에 設置된 것.
- 郷土室~獨立된 敎室에 設置된 것.
- 郷土 Center~玄關, 昇降口, 複道 等에 設置된 것.

○郷土 文化館 또는 郷土 博物館~地域社會의 文化館 또는 公報館 或은 公會堂 等に 併設된 것.

5. 資料內容;

郷土社會內的 靜的, 動的, 空間的, 時間的 및 物的, 人的, 各種資料를 調查蒐集한다.

6. 調査方法;

- 個別調査~各學校 單位로 調査한다.
- 共同調査~各地區 單位로 同一地區의 各學校가 分野別로 分擔 調査하여 그 結果를 相互交換한다.

7. 資料의 展示 및 陳列

○郷土의 實態와 課題를 有機的으로 一目瞭然하게 把握할 수 있도록 展示한다.

○우리 郷土의 過去 및 現況과 將次있어야 할 우리 郷土의 未來像을 比較할 수 있게 各種資料를 展示한다.

○우리 社會의 人的, 物的, 資源을 郷土問題 解決의 場이 되도록 展示한다. (내고장의 古蹟, 人物, 우리 學校를 도운 人物, 歷代校長 및 期成會長의 寫眞 等)

資料의 陳列方法을 다음과 같이 한다.

○資料의 陳列은 小博物館 形式으로 꾸민다. 卽 內容別, 時代別로 區分陳列하고 가능한, 單式 陳列을 하여 資料의 全貌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한다.

○資料에 附찰과 說明書를 부착하여 學習活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資料의 出處와 構造 使用方法, 元發明者 等 學習에 必要的 可能한 說明을 부착토록 한다.

○資料의 元臺帳을 만들어 비치하며 資料의 固有番號를 부여한다.

○資料의 파손과 오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 상자를 이용하거나 書畫類나 木, 皮, 製品의 보관에는 좁을 방지하기 爲하여 나프탈린 기타 藥品을 이용하도록 한다.

※ 자료 대장(예)

구분 No.	자료명	분류 번호	출 처	입 방	수 법	입 연월일	수 량	진열상 자번호
1								
2								

8. 管理運營의 實際;

○各 學校의 郷土館, 擔當 主務 教師가 責任지고 郷土 開發研究班 學生들이 管理運營한다.

○郷土館運營表 및 人的, 物的, 資料目錄을 作成 備置한다.

單元名	郷土 資料名	必要數	資料의 所在	使用資料分 區	備 考
				圖表·實物	

以上과 같은 目錄簿(例)를 만들어 놓고 全教科에 걸쳐 教科書 內容을 分析하여 教科 單元別 郷土資料一覽表를 作成하여 各教科마다. 學習 指導錄 앞에 添付 活用한다.

9. 問題點;

① 郷土資料의 蒐集과 陳列에 그치고 있어 그 效率의 인 活用狀態가 不實하다.

② 地域 社會人의 郷土館에 對한 理解가 不足하여 非協調的이다.

③ 教育課程 運營上에 必要한 郷土資料의 調査가 不充分하여 必要 不可缺의 資料把握을 하지못하고 있다.

④ 施設 및 設備의 不足으로 設置 運營上에 隘路가 많다.

⑤ 各學校 單位의 單獨 調査 蒐集으로 因하여 努力과 經費의 浪費가 많다.

⑥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學校 自體 經費로 充當하고 學年度初에 所要豫算을 별도로 策定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10. 將來計劃 및 提言

將次는 各 市郡 또는 各地區 單位로 郷土 文化館(또는 郷土博物館)을 設置運營함으로써 郷土人에 依한, 郷土人을 爲한, 郷土課題의 解決 및 郷土社會의 發展에 貢獻할 수 있는 郷土文化 Center로서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도록 積極 推進할 計劃으로 있다.

筆者의 所見으로서는 于先 既存 地域社會의 公共圖書班 및 文化院에 郷土室을 반드시 設置하도록 권하고 있고 各級學校別로 設置運營하고 있는 郷土館 또는 郷土室의 資料中 一部를 嚴選하여 集中的인 保管을 前提로 하고 地區別로 中心되는 學校에 綜合郷土館을 設置케 하면 보다 廣範圍한 資料保存 및 活用이 可能할 것 이로 본다.